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금혜윤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3460-1205)



차 례 ●●●

1. 세계 FTA 확산 추이와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2. 한국 및 FTA 기발효 상대국의 FTA 추진 동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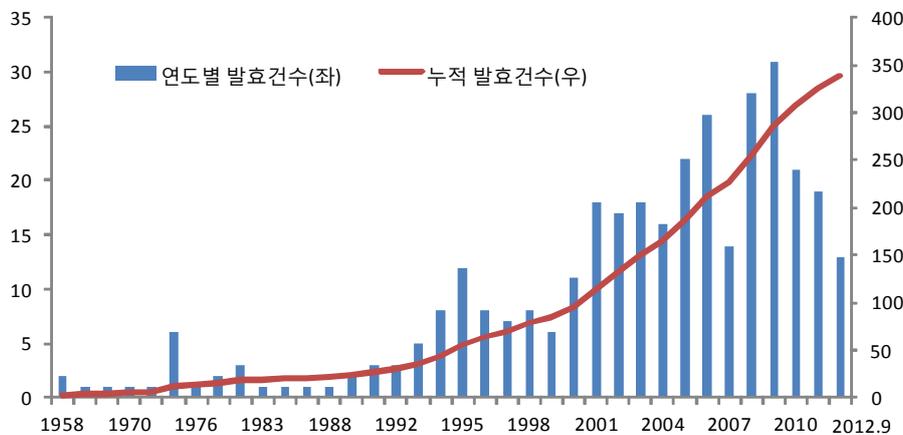
- ▶ 2012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며, 그 가운데 FTA는 1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함.
 - 주요국의 FTA 추진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2011년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의 FTA를 통한 수출입 비중은 각각 26.6%와 15.8%, 일본은 각각 18.9%와 17.9%이며, NAFTA와의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각각 41.4%와 30.4%임.
 - ASEAN과 EU는 전체 FTA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ASEAN이 60.5%와 58.9%, EU는 86.0%와 78.4%에 이룸.
 - 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과 FTA 발효국의 교역 비중은 수출 26.4%, 수입 23.0%였음.
- ▶ 주요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각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며 무역 전환효과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FTA 추진을 지속해야 함.
- ▶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들은 중국·일본·미국 등 주요 경쟁 국가들과의 FTA 체결도 활발하므로 한국은 상대국 시장에서 FTA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FTA 발효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칠레와 ASEAN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품목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이 FTA 상대국 시장에서 FTA 체결의 이점을 유지하려면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보 교환,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1. 세계 FTA 확산 추이와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가. 세계 FTA 확산 추이

- WTO가 출범한 1995년을 기점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더욱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9월 현재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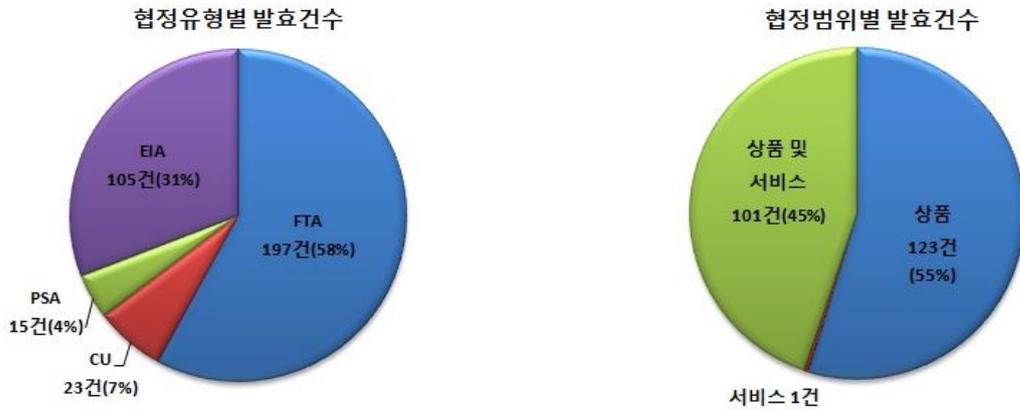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RTA 발효 현황



자료: WTO(www.wto.org).

- 유형별로는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220건(자유무역협정 197건, 관세동맹 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64.7%)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이 105건(30.9%),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이 15건(4.4%)임.
- RTA 포괄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상품에만 적용되는 협정이 123건(55%)이고,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협정은 101건으로 45%를 차지함.
-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FTA가 크게 확산된 것은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국가 간의 양자 무역협상 또는 경제블록 추진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역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역외 국가가 받게 될 반사적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국가들이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면서 FTA 체결이 더욱 가속화되었음.

그림 2. 유형별 · 범위별 RTA 발효 현황



자료: WTO(www.wto.org).

나.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1) 중국

-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비롯하여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와의 FTA를 발효 중이며, 대만과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도 체결하였음.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에 따라 FTA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초기에는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상국가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중국이 현재 FTA 공식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아이슬란드, GCC,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이며, 2012년 5월에는 한국과 FTA를 개시하였음.¹⁾

2) 일본

-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ASEAN,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총 12건과 칠레와의 FTA를 발효 중임.
- 일본은 상품, 서비스 중심의 FTA보다 투자,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E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ASEAN 개별국과도 EPA를 별도로 체결한 경우가 많음.

1) SACU는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5개국이며, GCC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임.

- 현재 일본이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GCC, 몽골, 호주이며, 한국과의 FTA는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그 밖에 캐나다, 한·중·일, 콜롬비아, EU와의 FTA 추진을 검토 중임.
- 일본은 EU와의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교섭 단계를 밟고 있으며, 미국이 포함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참가 여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 및 국내 농업부문의 반대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임.

3) ASEAN

- ASEAN은 2010년 1월을 기점으로 주변의 경제대국인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를 모두 발효함.
- ASEAN은 현재 발효 중인 FTA를 바탕으로 ASEAN+3(한·중·일)와 ASEAN+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의 아시아지역 경제통합(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음.
- ASEAN 회원국 중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던 싱가포르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개별국 차원의 FTA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EU와의 FTA 역시 이러한 개별국 추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미국

-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시작으로 NAFTA(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CAFTA-DR,²⁾ 오만, 페루, 한국,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여 현재 총 1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파나마와의 FTA는 2007년 6월 정식서명을 마친 상태임.
- 미국은 NAF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경제적 유대관계가 깊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FTA에 적극적임.
- 오바마(Obama)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규 FTA 협상을 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더 많은 국가들과 더욱 높은 수준의 지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TPP 확대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현재 14차 회의까지 개최하였음.³⁾
- 그 밖에 미국은 ASEAN 회원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이집트, 대만, 파키스탄, 조지아 등과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2) CAFTA-DR은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7개국임.

3) TPP(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파트너십)는 기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P4)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류하여 확대 협상이 진행 중임.

표 1. 한국 및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타결	협상진행	여건조성
한국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상품 07.6, 서비스 09.5, 투자 09.9),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콜롬비아(12.6 타결) 타키(12.8 정식서명)	캐나다(08.3 13차 협상) 멕시코(08.6 2차 협상) GCC(09.7 3차 협상) 호주(10.5 5차 협상) 뉴질랜드(10.5 4차 협상) 인도네시아(12.7 1차 협상) 중국(12.8 3차 협상) 베트남(12.9 1차 협상)	한·중·일, RCEP MERCOSUR, 몽골,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 일본과의 협상 재개 검토
중국	홍콩, 마카오 CEPA(04.1) ASEAN(상품 05.7, 서비스 07.7, 투자 09.8), 칠레(상품 06.10, 서비스 10.8), 파키스탄(상품 07.7, 서비스 09.10), 뉴질랜드(08.10), 싱가포르(09.1), 페루(10.3), 대만 ECFA(10.9), 코스타리카(11.8)	-	SACU(04.6 협상개시) 아이슬란드(08.4 4차 협상) GCC(09.6 5차 협상) 노르웨이(10.9 8차 협상) 호주(11.7 16차 협상) 스위스(12.2 4차 협상) 한국(12.8 3차 협상)	한·중·일, 인도, MERCOSUR
일본	싱가포르(02.11), 멕시코(05.4), 말레이시아(06.7), 칠레(07.9), 태국(07.11), 인도네시아(08.7), 브루나이(08.7), 필리핀(08.12), ASEAN(08.12), 스위스(09.9), 베트남(09.10), 인도(11.8), 페루(12.3)	-	GCC(07.1 2차 협상) 몽골(11.4 협상개시) 호주(12.6 16차 협상)	캐나다, 한·중·일, 콜롬비아, EU ※ 한국과의 협상 재개 검토
ASEAN	중국(상품 05.7, 서비스 07.7, 투자 09.8), 한국(상품 07.6, 서비스 09.5, 투자 09.9), 일본(08.12), 인도(상품 10.1), 호주뉴질랜드(10.1)	-	EU(09.12 전체가 아닌 개별국과의 양자 FTA 추진 결정)	GCC
미국	이스라엘(85.8), NAFTA(94.1), 요르단(01.12), 싱가포르(04.1), 칠레(04.1), 호주(05.1), 모로코(06.1), 바레인(06.8), CAFTA-DR(06.3), 오만(09.1), 페루(09.2), 한국(12.3), 콜롬비아(12.3)	파나마(07.6 정식서명)	TPP(12.9 14차 협상) ※ SACU, CAN, 에콰도르, 태국, FTAA, UAE, 말레이시아와의 협상 중단	ASEAN,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만, 파키스탄 조지아
EU	OCTs(71.1), EFTA(77.1), 안도라(91.7), EEA(94.1), 타키(96.1), 페로제도(97.1), 팔레스타인(97.7), 튀니지(98.3), 남아공(00.1), 모로코(00.3), 이스라엘(00.6), 멕시코(상품 00.7, 서비스 00.10), FYROM(01.6), 크로아티아(02.3), 산마리노(02.4), 요르단(02.5), 칠레(상품 03.2, 서비스 05.3), 레바논(03.3), 이집트(04.1), 알제리(05.9), 알바니아(06.12), 몬테네그로(08.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08.7), 코트디부아르(09.1), 카메룬(09.10), 파푸아뉴기니(09.12), 세르비아(10.2), 한국(11.7)	시리아(04.10 타결) 페루-콜롬비아(11.4 가서명) 중미(11.3 가서명)	인도(10.11 11차 협상) 우크라이나(11.9 18차 협상) 캐나다(11.10 9차 협상) 싱가포르(11.6 7차 협상) 말레이시아(11.10 5차 협상) MERCOSUR(11.11 7차 협상) ※ CAN, 에콰도르, 리비아, GCC와의 협상 중단	일본,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조지아, 브루나이, 몰도바,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자료: 저자 정리.

5) EU

-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인근 국가와의 FTA 또는 관세동맹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으나 최근 한국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는 등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임.
- 또한 EU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들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빈곤 퇴치와 개발을 돕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품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임.
 - 현재 CARIFORUM(카리브 공동체 14개국+도미니카 공화국) 및 ESA(아프리카 동부 및 남부 지역 12개국)와의 EPA가 발효 중임.⁴⁾
- EU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인도, 우크라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MERCOSUR이며, 협상 추진을 검토 중인 국가는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임.
- ASEAN 10개국 간 경제수준 격차와 일부 국가들의 인권문제로 ASEAN과의 FTA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EU는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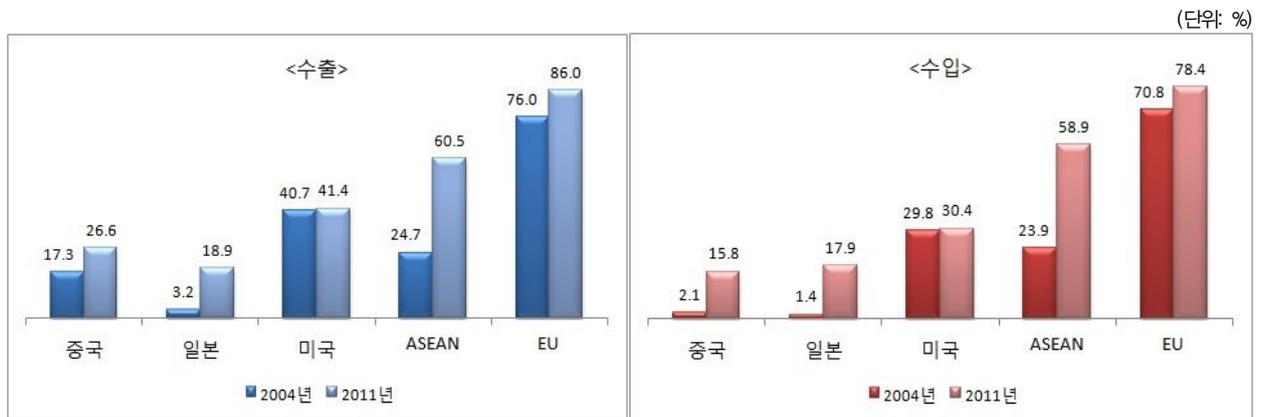
다.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 중국은 2004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를 발효하면서 FTA 수출입 비중이 각각 17.3%와 2.1%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각각 26.6%와 15.8%까지 증가했으며, FTA를 체결할수록 상대적으로 수입의 증가폭이 커짐.
- 일본의 경우 2004년에는 싱가포르와의 FTA만을 발효한 상태로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3.2%와 1.4%로 미미하였으나 2011년에는 18.9%와 17.9%로 증가함.
- 미국은 1994년 발효된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역내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로 2004년 FTA에 따른 총수출입 비중은 40.7%와 29.8%였으며,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의 수출입 비중은 41.4%와 30.4%였음.
- ASEAN과 EU는 전체 FTA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ASEAN의 경우 60.5%와 58.9%, EU는 86.0%와 78.4%에 이룸.

4) CARIFORUM(The Caribbean Forum of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에 속하는 국가는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안,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이며, ESA(Eastern and Southern Africa) 대상국은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코모로,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셸임.

- 2004년 EU의 FTA 수출입 비중은 76.0%와 70.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ASEAN은 2005년 이후 중국, 한국, 일본과 FTA를 연속적으로 체결하면서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음.

그림 3.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주: 2011년 교역 비중 계산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오스트리아, 몰타, 네덜란드, 스페인은 2011년 자료가 부재하여 2010년 교역액을 사용.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한국 및 FTA 기발효 상대국의 FTA 추진 동향

가. 한국의 FTA 추진 동향

- 1999년 12월 칠레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및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총 8건을 발효 중이며, 2012년 6월에 한·콜롬비아 FTA를 타결하였고, 8월에는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음.
- 한국은 특히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GCC(걸프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이며, 협상 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 국가는 한·중·일, RCEP, MERCOSUR, 이스라엘,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등이고, 2004년 중단된 일본과의 FTA는 현재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음.⁵⁾
- 한·중 FTA는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해 2007년 3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5월 공식협상이 개시되어 8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3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음.

5) MERCOSUR 정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이고, 한국과의 FTA 공동연구에 참여한 중미 5개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임.

- 2011년 교역액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26.4%, 수입 23.0%임.
- 2004년 한국이 첫 번째 FTA를 발효할 당시 FTA에 따른 수출입 비중은 0.3%와 0.9%였으나, 이후 ASEAN, EU와 같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그림 4 참고).
- 2004년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미국과 EU가 가장 컸으나 2011년 현재는 ASEAN이 한국 전체 수출의 12.9%, 수입의 1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EU FTA 발효 연도인 2011년까지 EU와의 교역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음(표 2 참고).

그림 4. 한국의 FTA 교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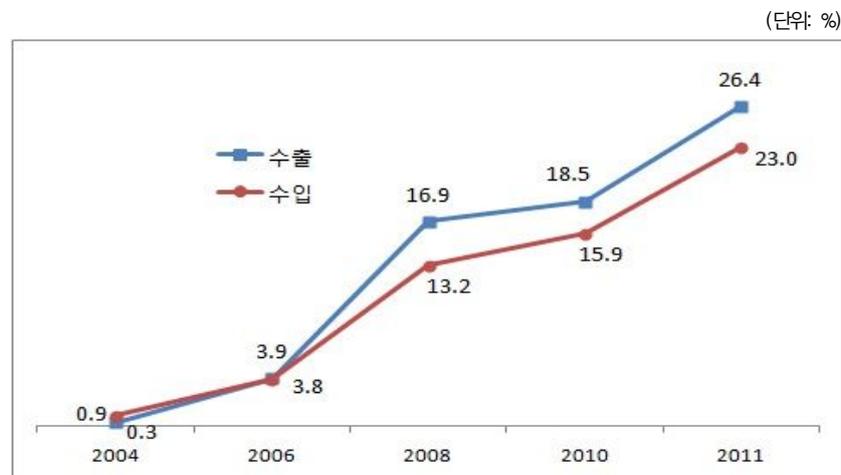


표 2. 한국의 FTA 기발효국별 교역 비중

(단위: %)

기발효국	수출 비중					수입 비중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칠레	0.28	0.48	0.72	0.63	0.43	0.86	1.23	0.95	0.99	0.93
싱가포르	2.23	2.92	3.86	3.27	3.75	1.99	1.90	1.92	1.85	1.71
EFTA	0.34	0.53	0.60	0.76	0.33	0.80	0.71	0.95	1.34	0.99
ASEAN	9.46	9.85	11.68	11.41	12.93	9.97	9.61	9.40	10.37	10.13
인도	1.43	1.70	2.13	2.45	2.28	0.82	1.18	1.51	1.33	1.51
EU	15.14	15.16	13.88	11.48	10.14	10.85	9.76	9.19	9.11	9.04
페루	0.10	0.11	0.17	0.20	0.25	0.13	0.22	0.21	0.24	0.37
합계	26.75	27.83	29.17	26.93	26.35	23.44	22.71	22.21	23.39	22.96

주: 2011년 말 현재 발효국 기준.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FTA 기발효 상대국의 FTA 추진 동향

- 2000년대 이후 선도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해온 칠레 및 싱가포르, 2009년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온 페루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FTA 역시 이미 발효된 상태임.

- EFTA와 EU의 경우 인근 지역은 물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ASEAN은 주변국과의 FTA 체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도와 미국은 지리적·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신중하게 FTA 상대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계적으로 FTA 체결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국의 통상정책에서 FTA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신흥경제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 일본 등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3. FTA 기발효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2004~12년)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2004	미국, 한국, EFTA	미국	칠레			이집트		싱가포르, 칠레
2005		인도, 요르단	튀니지	중국	싱가포르	알제리		호주
2006	P4, 중국	한국, P4, 파나마	한국		SAFTA, 부탄	알바니아		모로코, 비레인, CAFTA-DR
2007	일본, 인도		레바논, 이집트	한국	칠레			
2008	파나마, 온두라스		SACU	일본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CARIFORUM		
2009	호주, 페루, 콜롬비아	중국, 페루	캐나다		MERCOSUR, 네팔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피지, 파푸아뉴기니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오만, 페루
2010	과테말라		알바니아, 세르비아	호주·뉴질랜드, 인도	ASEAN, 한국	세르비아	중국	
2011	터키		콜롬비아, 페루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EFTA, 한국	
2012			우크라이나			ESA	멕시코, 일본, 파나마	한국, 콜롬비아

주: 한국과의 FTA는 음영 처리 하였으며, 포괄적 FTA가 아닌 경우에는 상품협정 발효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함.
자료: WTO(www.wto.org)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다. FTA 기발효 상대국의 대한국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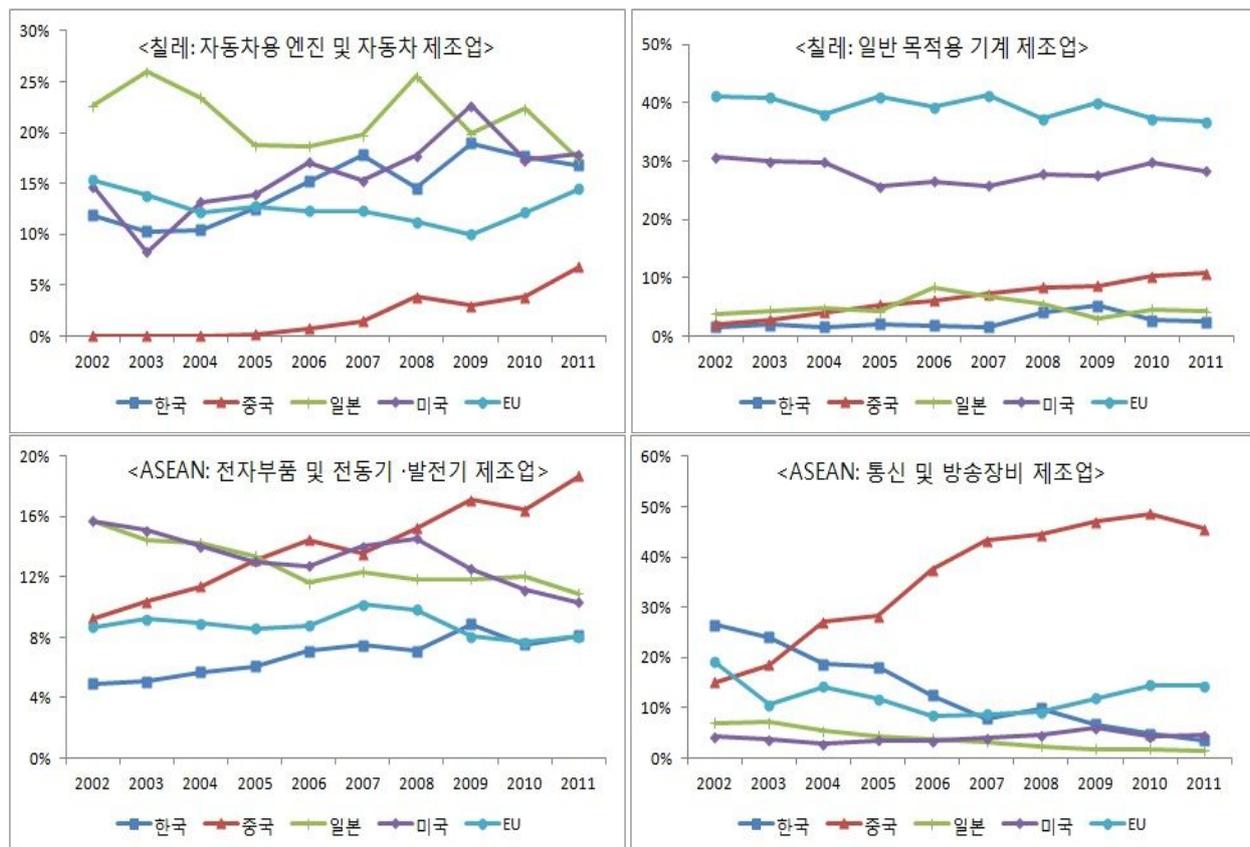
- 한국과의 FTA를 발효한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만큼 한국이 누릴 수 있는 FTA의 긍정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 수 있음.
 - 한국이 FTA에서 기대하는 수출확대 효과는 한국 제품에 대한 FTA 기발효국의 수입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음.
 - o 한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5년 이상 된 국가 중 다양한 제조업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칠레와 ASEAN의 수입시장을 분석함.
- 각 산업별 전체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의 FTA 발효 이후 대한국 수입비중이 점차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과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2000~11년 기간에 한국의 대칠레 수출 품목 2위와 6위를 차지함.
- 한·칠레 FTA는 이 산업들의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06년 칠레와의 FTA를 발효한 중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각 산업별 전체 ASEAN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전자부품 및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FTA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함.

- 전자부품 및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은 2000~11년 동안 한국의 대ASEAN 수출 품목 1위와 9위를 차지함.
- 전자부품 및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은 2002년부터 대ASEAN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의 수입비중은 2008년에 반등했다가 이후 다시 하락함.

그림 5. FTA 발효국의 대한국 수입비중 추이



주: 산업분류는 ISIC Rev.3 3단위 기준임.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시사점

-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각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 수출비중은 26.4%, 수입비중은 23.0%로, 이는 ASEAN, EU,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중국과 일본보다는 높음.
 -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을 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의 FTA 체결 속도는 한국보다 다소 늦은 상태이나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여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함.
 -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FTA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국과의 FTA를 발효한 국가들은 대체로 FTA 체결이 활발한 국가 및 지역이므로 한국은 FTA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칠레, 싱가포르, 페루에서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FTA가 이미 발효 중이며, ASEAN과 인도 역시 FTA 상대국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 한국이 누릴 수 있는 FTA의 이점은 점차 줄어들 수 있음.
 - 한국은 효율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FTA 상대국과의 정보 교환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의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FTA 발효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함. **KIEP**